

2018년 11월 19일,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, 이현정 조사.

이옥선(여, 1938년생, 제주시 도두1동)

-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,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용두암 근방의 용수라는 물에는 일 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뱀이 살고 있었다. 하루는 절 오백 당 오백을 부수러 다니던 영천 이목사가 이 마을을 살피는데, 무남독녀를 뱀의 제물로 바쳐야 할 집안이 온통 울음바다인 상황을 보았다. 자초지종을 들은 이목사는 소금을 몇 가마 준비하라 명령하고 처녀를 용수에 빠뜨리지 않은 채, 용수 근처의 바위에 앉게 한 뒤 심방들에게 굿을 하라고 하였다. 이목사는 뱀에게 나와서 처녀를 물어가라고 말한 뒤, 뱀이 용수 밖으로 나오자 장군칼로 목을 내리쳤다. 그리고 잘린 뱀의 목이 다시 붙지 못 하게 소금을 잔뜩 뿌려 물리쳤다.

[조사자] 저쪽에 용두암은마씨, 무사 건 용머리렌 험니까.

[제보자] 그디게 돌이 용바우 있잖아.

[조사자] 게니까, 그니까 용이 왜 무사 거기 있덴마씨?

[제보자] 용이 잇인게 아니고 생긴 돌이 용 닮으난 용바우엔 헛주. 옛날이 거기 그 용수, 용수헌 물이 잇저 거기. 그 출랑다리 밑에, 출랑다리 봐 낫지? 그 용수 가면은 거기 출랑다리 잇저게 이제. 전이부떠 낫전. 이제 거 논 제가 헌 오십 년 뽕일 거라. 오십 년쯤 뽕일 거라. 그 출랑다리 밑에 용수라고, 그 버염이 일년에 한 번씩 외동똥로만. 제숙이엔 헨 그 물이 드리쳐 낫주게, 거 먹으렌.

경헌디 이젠 저 영천, 영천에서 온 이목서가 오랏어. 이제 저 절도 아홉, 본향도 아홉 다 부수와 불엇젠, 목사가. 절 아홉이엔 허는지, 뭐 당 오백 절 오백을 다 부수와 불엇젠 헤여, 생기지 못허게.

경헌디 이젠 그 훈 집에서가 이제 똥을 그 해에 제숙으로 바찌게, 무남독녀를 바찌게 뽕난 막 울었이난. 무사 경험이넨 하난 이제, 자기 똥을 이제 제숙으로 오늘 이번에 바찌게 뽕엇젠. 경허난 돌아가그네 저 돌 잇는디 앓지렌.

경허고 이제 소곰을 멧 가마 준비하고 헤연. 막 심방덜고라

“굿하라.”

고 헨. 나왕 들이치지 안헤연

“나와서 제숙을 물어가라.”

고 거난 무죽 행 나오난. 더 나왕 물어가렌, 더 나왕 물어가렌. 게 전인 들이
쳐 줘 난디 들이치지 아니헨. 더 나왕 물어 가렌, 더 나왕 물어 가렌 헨 막 올라
오난. 그냥 큰 대장칼로 그냥 골겨 죽연 부뜨카 보덴 소곰을 막 헤 불엇젠 허는
거라. 소곰을. 만약 부뜨카 보덴. 쫄른 게 따시 부뜨카 보덴. 그추룩 헨 구신이난
부뜨카 보덴 막 소곰을 갓당 퍼부어 불엇젠. 경허난 그 구신이 엇어져 불엇젠.
그 용수, 용수주기.

[조사자] 거기가 용수, 저 용머리우과?

[제보자] 응. 용머리. 용머리 가기 전이 용수엔 헨 물 이제 잇저. 바당물 허곡 산으로 노
리운 물허곡 그것이 서문다리로 내려가는 디에게, 알에. 바당꺼지 노려간 디.

[조사자]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엇우과?

[제보자] 우리 어머니가 말해준 거 들은 거라.

- 핵심어: 용수(용소), 버염(뱀), 딸(딸), 제숙(제물), 이목서(이목사), 무남독녀, 소곰(소금), 대장칼, 굿, 구신(귀신)